

제 11강 제국의 특성

◆1교시: 생산의 변형들

▲비물질노동의 개념

비물질노동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변형들 얘기가 전부다 연결됩니다. 5)나 6)이나 7), 8) 전부가 비물질노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면 될 거 같은데요. 건 뭐, 노동 유연화 문제는 이런 네트워크적 생산으로의 이행 속에서 기업이 라거나 경영, 노동과정, 노동력 - 이런 것들이 전부 자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연함으로 바뀐다. 노동 입장에서 보면 불안정으로 바뀌는 거죠. 요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비물질노동 개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풀어서 보면 좋을 거 같고요. 비물질노동은 제국 속에 나오긴 하지만, 그 개념을 독립시켜서 분석한 책이 비물질노동과 다중이라는 책이거든요. 들뢰즈라거나 마우리쥬오 라짜라토(Maurizio Lazzarato)라거나 빠올로 비르노(Paolo Virno)라거나 이런 사람들의 글들을 주로 번역하고 몇 편은 집필한 걸로 써 봤는데, 여기 글이 번역된 사람들을 비물질노동 학파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이탈리아인들이 주축이 되어 있으면서 하나의 학파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비물질노동 개념에서는 물질, 비물질이라고 하는 개념이 동원이 되는데... 이 개념이 좀 우리가 유물론이라 할 때 그 물질 개념하고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야 하나? 혹은 유물론이라고 할 때 물질 자체가 중요하고 있다고 해야 하는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어요. 물질이라는 게 뭐냐가 예전에는 명료했었거든요. 예컨대 레닌같은 경우에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에서 독립된 객관실재다’ -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들의 의식에서 독립되어 있는 객관실재로 레닌은 정의내리는 거죠... 그러면은 물질이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은 인식론적 차원에서 정의되는 거죠. 의식의 관점에서 물질이 정의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 강의를 시작하면서 ‘존재론적 전환’이라고 시작했는데, 이럴 때 물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는 문제는, 요 개념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걸로 일단 남아있는 것이죠. 왜냐면 들뢰즈라거나 가타리, 또 좀 거슬러 내려가서 베르그송 이런 사람들에게서 유물론, 관념론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미 낡아버린 용어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유물론의 경우에는 객관실재 개념으로 현실을 바라보려는 입장을 의미하고, 관념론은 요 의식을 중심으로 해서 존재론을 - 관념론의 존재론은 의식 존재론이고, 유물론의 존재론은 객관실재론인데 사실상의 물질 온톨로지(Ontology)라는 의미에서의 물질 개념을 이야기 할 때는 이게 의식으로 환원될 수도 없고, 객관실재로 환원될 수도 없는 그 무엇으로서 재개념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재론적인 물질개념 - 베르그송, 들뢰즈 경우

그래서 베르그송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존재론적인 물질 개념에 제일 상응하는 것은 지속(duree)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지속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개념이거든요. 시간이 존재의 전체로 얘기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의 대비 속에서 사용되어서, 그니까 지속이 물질과 생명으로 분화되는데 물질이라고 하는 생명은 하나의 폭발인데요. 이 폭발된 생명이 속도가 감속되었을 때 그래서 비유하기를 볼

꽃놀이에서 불꽃 있잖아요? 총을 확 쏘을 때, 빵하고 터졌을 때에는 아무것도 안보이잖아요. 없다가 이게 허공으로 올라가서 속도가 떨어질 때 불꽃이 확 나타나죠. 고려한 의미에서의 불꽃과 같다고 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속도가 저하되어서, 경화되어가는 현상을 물질이라고 지칭을 하거든요. 근데 이 때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에 더 가깝죠. 우리의 지각과 관련되는 물체에 더 가깝고, 존재론적 의미에서의 물질 개념. 즉 레닌이 정의하려고 했고 맑스도 의지하려고 했던 물질개념은, 오히려 지속에 더 가까운 거죠.

그럼 들뢰즈의 경우에는 지속 개념이 다시 인제 실재(reality)란 이름으로 나타나고, 잠재태와 현실태라고 하는 두 양태를 갖는 걸로 정의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 잠재태는 의식에 더 가깝고, 현실태는 객관실재에 더 가깝죠. 근데 실재라고 하는 거는 이 두 양태를 다 포함하는 의식도 아니고 실재도 아닌 그러나 그 둘 모두인, 그 무엇으로 정의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물질 개념이 안정돼있지 않습니다. 어쨌건 철학사에서 보면은... 무얼 물질로 정의할 것이냐가 모색과정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대한 어떤 레닌적인 개념이라거나 혹은 기계론적 유물론의 물체 - 물체로서의 물질관 이런걸 가지고 접근할 때에 - 이 물질, 비물질 개념의 이해에 도달하는데 응용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그리와 하트의 물질, 비물질

근데 지금 이제 네그리와 하트가 물질노동, 비물질노동이라고 했을 때에는 물론 material이라는 말을 쓰지만, corporeal에 더 가까운 의미를 갖습니다. - 신체적이라는 의미. corps - 몸이라는 건 신체라고 하는 거죠. 신체적인 노동, 비신체적인 노동 - 그런 것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질 개념에 대한 완전한 논쟁적 규정 하에서 이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건 아니다, 더 규명될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 비물질적 노동을, 비물질 노동을 정의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그리나 하트가 제국에서 사용하는걸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애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비물질적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 - 제국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그 이전 보면은 좀 다른 얘기를 해요. 디오니소스의 노동이라거나 이런 책에 보면은 약간 다른 너앙스들이 나타나는데 제국에서는 이걸로 단일화 시켰어요. 즉 생산물 기준으로 물질노동, 비물질노동을 정의한 것이죠. 생산자 개념이라거나 생산과정 개념으로 정의한 것이 아닙니다. 비물질노동이라고 하는게 비신체적노동 이렇게 말하는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제국에서는 모든 생산은 신체적이다, 물질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이지 않은, 물질적이지 않은 노동이라고 하는 건 없다. 심지어는 두뇌적 노동이라고 할지라도 두뇌라고 하는 신체를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서비스 노동, affective한 노동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막 감정을 쓰고 심장을 쓰고 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부 노동과정에서 보면은 물질적 노동이다. 그러나 생산물에서 보면은 다르다는 것이죠. 생산물이...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잖아요? 말을 하는데는 혀와 입술, 목구멍 등등 신체의 다양한 기관들을 쓰고 심지어는 배까지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상당부분을 사용해서 소리를 만들어 내는데, 이 소리는 '아 저것이다'하고 육안에는 포착하기 힘들죠. 뭔가 이제 다른 기계장치를 거기다 갖다대가지고 소리의 파동을 모니터링하는 거는 가능할거예요. 그러나 모니터링된 그것을 우리는 소리 자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활동을 통해

서 비물질적인 생산물을 생산해내는게 강의인 셈이죠. 그거는 뭐 서태지 같은 가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배우들의 경우에도 몸짓이 우리 눈에 보이긴 하나 몸짓 그 자체를 우리는 예술작품으로 보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몸짓에서 몸짓으로의 이행, 그 시간 - 시간적 움직임을 우리는 배우들의 연기라고 보는 것이죠. ‘그거는 저거다’라고 집을 수 없는 대상화 불가능한 그 무엇으로서 움직이기 때문에 비물질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비물질생산

근데 맑스가 <직접적 생산과정의 제결과>라고 하는 소논문에서 (원래 계획은 자본론 6장으로 집어 넣을라고 했던건데, 안 집어넣고 그냥 독립논문으로 남아 있었는데, 경제학노트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게 번역되어서 실려있습니다. 김호균 씨 번역으로) 여기에 보면은 비물질적 생산이라는 용어를 맑스가 처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비물질적 생산이라고 하는거는 바로 이 첫 번째 것처럼 ‘비물질적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으로 정의가 됩니다, 일단 하나가. 그래서 맑스가 드는 예로는 배우들의 연기와 책을 들고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로 이 비물질적 생산을 정의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두 번째 건 뭐냐 하면 ‘유통과정으로 들어갈 생산물이 생산되지 않는 노동’ - 만약에 여기가 자동차 공장이라고 치면은 자동차가 만약에 말을 통해서 막 만들어진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말을 한마디 할 때 자동차 쪽쪽 나와 가지고 바깥에 막 대기를 해야 할꺼 아닙니까? 짹 해서 선적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강의를 마치고나면 이걸 없애버리잖아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죠. 물론 저기 카메라가 찍고 있는데... 저 안에 담기는 거는 이 활동이 아니고 카메라를 찍는 카메라맨의 노동이죠. 스테이지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시디에다가 녹음을 했다고 했을 때, 시디 제작은 시디 제작하는 노동하는 사람들의 노동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 자체를 일종의 사건으로 표현한 것이죠.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그 사건을 구성한 사람들이 흩어져버리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게 되는 거죠. 소리 없이 사라져버리고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가르친다거나 보살피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무언가를 보살폈는데 그게 생산물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마치 보살핌을 당한 사람의 몸이 보살핌을 받기 이전에서 받은 이후까지의 변화를 통해서 건강한 몸이 생산되었다거나 무언가 정감이 넘치는 몸이 생산되었다거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몸 자체마저 유통과정 속으로 들어간다고보다 또 다른 생산과정으로 들어갈 뿐이죠. 그러니까 유통의 매개를 경유하지 않는, 유통을 거치지 않는 것이죠. 직접적인 생산과정 속에서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되고 다 되는 것이죠. 이 노동을 비물질적 생산의 두 번째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맑스는 딱 이게 한 페이지 정도에서 간략한 단상으로 적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쫄트머리에 가면은 ‘이 두 개의 문제에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주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깊이 논할 필요가 없어’하고 끝내버립니다.

▲비르노와 라짜라토의 비물질노동

그러니까 결국 네그리나 하트, 혹은 비물질노동 학파 중 - 비물질노동 학파중에서 라짜라토가 비물질노동 개념을 제일 열심히 연구했어요. 책도 물론 불어로 되어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책을 갖다가 두어 권 썼고, 이 사람이 많이 연구를 했고 이 사람 견해하고 네그리 견해하고는 일치합니다.

근데 싸울로 비르노가 쓴 다중이란 책에서 비물질노동을 나름대로 정의를 하는데, 이 사람은 첫 번째(비물질적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를 비물질노동이라고 보지 않고, 두 번째(유통 과정으로 들어갈 생산물이 생산되지 않는 노동=사건)를 비물질노동의 핵심으로 봐요. 그래서 네그리하고는 다른 견해를 제시합니다. 비르노하고 네그리는 아우또노미아운동도 같이 했고 감옥생활도 같이 했고 동지이자 좀 후배인데, 두 번째 개념을 비르노는 발전시켜가지고 사용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수행노동이라거나 이게 포스트모더니즘에 보면은 수행성(performativity) 개념을 강조하잖아요. 이 수행 개념이 두 번째에 더 가깝거든요. 노동이란 게 일종의 퍼포먼스라는 거죠. 그래서 비물질노동을 둘러싸고 이렇게 크게 두 유형의 견해가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대립적이거나보다는 다른 측면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형태예요. 근데 지금 두 번째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실제로 갖고 있는 거고, 네그리의 접근 방법은 첫 번째를 통해서 두 번째로 간다라는 과정이거든요. 제가 요점을 지금부터 이야기 하겠습니다.

▲네그리의 비물질노동 접근 방법

우선 비물질노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면은 KICA. Knowledge, Information, Communication, Affect. 이 네 가지 유형의 비물질적 노동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게 Knowledge에 관련된 거죠. 컴퓨터 소프트웨어 같은걸 생산한다, 책을 생산한다, 이런 거... 지적 생산의 상당 부분은 비물질적 생산물을 생산해낸다. 그래서 지식의 경우는 비물질노동 학파만이 받아들인게 아니고,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사회당들에서, 즉 사회민주주의자들 상당부분 이걸 받아들였어요. 생산의 초점이 지식집약적인걸로 나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황태연 씨 같은 사람이 1993년에 독일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바로 지식프롤레타리아트 이거를 가지고 들어왔었는데요. 지식프롤레타리아트는 그때 인제 맑스주의 공부하는 사람들 상당부분에게 사실은 수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요것(Knowledge)만을 강조를 했던 반면, Information 정도는 Knowledge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나머지 두 부분(Communication, Affect) 같은 경우에는 - Communication 경우에는 Knowledge에 환원될 수 있는 부분과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Affect의 경우는 90년대 혹은 유럽에서는 80년대에 소위 그 지식집약산업화과정에서 누락되었던 부분인데, 네그리나 하트는 Knowledge와 Information을 (1)이라고 부르고 Communication, Affect를 (2)라고 했을 때 - (2)유형이 (1)유형보다도 비물질노동은 더 근본적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물론 네그리는 초기에는 (1)부분을 더 강조했어요. (2)부분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시다. 근데 그 때는 (2) 부분이 제대로 인지가 안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2) 부분은 페미니스트들이 제일 강조했던 부분이거든요. 여성 운동에서 caring work이라고 해서 보살핌 노동, 돌봄 노동, 이거를 강조하고 이것이 body politic하고 몸정치하고 연결돼있다 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왔었는데... 70~80년대에서 탄생해서 이후에 지속적으로 제기된 페미니즘의 Affect, 소위 caring work에 대한 개념을 네그리는 철학적으로 Affect 개념으로 재해석해가지고 비물질노동 개념속으로 도입하고 오히려 (2)가 더 근원적임을 주장하는 것이죠. 들뢰즈 철학에서 보면은 (2)가 더 virtual한 것이고 (1)이 더 리얼한 걸로 나타나거든요 사실상. (1)은 과학에 해당되고 (2)는 예술에 해당되는,

넓게 보면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예외가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커다란 범주에서 봤을 때 (1)이 인제 과학이고, (2)가 예술적인 것이고... 과학은 지성적인 거고 예술은 정동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2)이 더 virtuality 개념에 상응하는 거죠. 그래서 virtual의 어떤 primacy를 인정을 하면서 이것Knowledge 마저도 (2)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는 쪽으로 네그리는 입장전환을 했어요. 80년대 중반에 나온 (영어로 89년) 전복의 정치학 같은 책에서는 (1) 부분이 더 강조가 되어있거든요. Information하고 Knowledge부분... Intellect쪽이 훨씬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디오니소스의 노동, 제국으로 오면서는 (2)부분에 대한 강조가 더 두드러지죠. 마이클 하트한테 인터뷰 같은 것을 보면은 우리는 (2) (Communication, Affect)를 더 일차적인 걸로 파악하는 쪽으로 생각을 정리했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비물질노동화와 생산재배치

그럼 (1)이 뭐냐하면 정보생산, 소통과정이죠. 그럼 예컨대 우리가 인터넷에서 소통을 한 다거나, 오프라인에서도 커뮤니티를 구성한다거나, 기타 수많은 정보생산을 통한 소통관계. 그 다음에 (2)는 뭐냐하면 주로 서비스 노동들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노동의 서비스화가 사실상 진행이 되는데 왜 모든 노동이라고 부르냐면은 예전에는 물질적 상품을 생산하던 산업노동들도 이제는 점점 커뮤니케이션이자 어펙트적, 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니까 자동차를 생산하는 활동에 잘 달리는 자동차를 생산하는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아주 그 뭐 디자인이 아주 품격이 넘치고, -품격이 넘친다는 건 제 고정관념인거 같은데(웃음)- 하여튼 뭔가 사람들의 수요에 맞는 그런 자동차, 이것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미적 감정에서 소비자와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동차가 가져야 할 function이 문제가 아니고 aesthetic이 문제라는 거죠. (미학적 측면 - 이게 지금은 더 인제 자동차 기업으로 보면 경합적인 요소로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거죠. 그 다음에 승차감, 앉았을 때 편안함이라거나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죠. 과거에 자동차는 마력, 얼마나 힘껏 달릴 수 있느냐,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느냐, 이런 기능적 측면이 강했다면 지금은 서비스적 측면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감성에 부합하는 요소들... 인체 같은걸 우리가 보더라도 몸을 이제 가공하잖아요. 몸을 가공할 때에도 몸 자체가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 어떠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할 때만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은 바디빌딩을 했던 말이죠. 몸이 그냥 우락부락하고 근육질로 된 그런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몸을 가꾸는 바디빌딩, 몸 건설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게 아니고 자기의 에너지가 감아먹히는 한이 있더라도 남 보기에 좋은 그런 모습으로 바디빌딩을 하잖아요. 성형수술을 한 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꾸 서비스화 된다는 거죠. 남에 대한 봉사적 성격을 가져간다는...

농업 같은 경우도 그건 마찬가지이죠. 농업 자체가 영양가 있는 그 뭔가를 제공한다, 이 기능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영양가만으로는 지금은 농업자체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을 만치 농업의 서비스화 그 다음에 지성화, 이게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죠. 유전자 조작 생물들, 식물들의 경우에는 지성적인게 아주 핵심적인게 되고 이런 지식, 정보, 소통, Affect 등등으로 되어진 이 비물질적 활동들의 작용 범위가 모든 생산을 통해서 농업이건, 공업이건, 아니면 서비스업이건, 기타 다른 부분에서 점점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

죠. 그랬을 때에 이런 비물질적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크게 봤을 때에 근대화하는 삶이 노동화하는 과정이에요. 그니까 삶이라고 하는 거, 맑스가 Leben이라고 불렀고 들뢰즈가 Une Vie라고 부르는데. 그 삶은 방대한 거죠, 사실상. 우리들의 의식적, 무의식적 - 물질적, 비물질적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방대한 것. 그게 임금을 받는 활동으로 됐느냐 안됐느냐 그걸 떠나가지고, 아주 방대한 영역을 포함하는 것인데. 이 중에서 노동으로 간주되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죠. 근대적인데서 저 사람이 노동하고 있다 하면은 공장에 가야되고, 공장에 가서도 뭔가를 물질적 상품을 생산하는 행위에 종사해야 저 사람이 노동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맑스 같은 경우는 노동하면 임금노동을 의미했어요. 임금을 받고 수행하는 산업노동,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만약 그 부분만 노동으로 보게 된다고 치면은 노동이라고 하는 건 아주 보잘것없는 활동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아주 적은 부분. 임금을 받고 물질적 상품을 공장에서 생산해내는 활동. 아마 인구의 극소수만이 종사하는 활동이죠. 여기 뭐 지금 그렇게 치면 노동하는 분 있나요? 한 분도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웃음) 근데 왜 근대적 과정은 이 삶에서 그런 임금적인 거, 그 다음에 신체적인 거, 공장적인 거, 이런 특질들을 도려낸 것이죠. 그래서 예컨대 이반 일리치(Ivan Illich) 같은 사람은 ‘빙산의 일각만이 노동이다’ 그렇게 말했죠. 나머지 부분이 그림자 노동으로 있다는 겁니다. 끝 모를 넓이로 그림자노동이 임금노동에 뒤에 서는 훨씬 더 광대하게 남아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바로 이게 삶에서 노동을 절취해 내는 거. 자본이라고 하는게 삶에서 노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걸 절취해내는 그 과정이 바로 근대화 과정이다. 그럼 노동이 이제 죽으면, 임금노동을 산 노동이라고 칠 때, 죽은 노동이 되면은 자본이 되는 거죠. 자본, 노동, 혹은 삶 - 이런 식에 어떻게 보면 3차원적인 구조로 삶이 조직되었었는데...

▲삶 속으로 재생산되는 노동

지금 탈근대화 과정에서 보면은 역전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노동이라고 하는게 삶속으로 재통합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좀 어렵죠? 노동이 삶 속으로 재통합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식노동을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만약에 교육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교육행위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아니면 마을의 촌장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하거나... 이런 식의 활동이었죠? 그런데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는 방식을 보면, 예컨대 조선시대 때의 가사 장르가 발전하는데... 가사는 사사조 리듬으로 돼있는 그거잖아요? 사사조 리듬으로 된 가사장르의 발전은 주로 인제 아낙이라고 부르는 흐름을 따라서 발전되어왔죠. 주로 부모가 자기 딸이 시집을 갈 때에 두루마기에 가사로 시집가서 해야 할 일들을 노래의 형태로 적어가지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지침품? 혼수품 비슷하게 하여튼 그런 식으로(웃음) 결혼할 때에 주거든요. 그러면 인제 평생 동안 그 두루마기에 쓰인 거 보고 시집살이를 하는 거죠. 그니까 그게 이미 교술적인 내용, 어떤 교육적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근대화 과정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노동으로 평가 안되고... 노동 외적인걸로 평가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근데 탈근대에 들어오면은 바로 그러한게 노동의 핵심 영역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지식을 생산하고 지식을 분배하고 유통하는 행위. 이게 중요한게 됩니다.

▲삶 속으로 재생산되는 노동 - Affect

Affect 부분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비스라고 불리는 것들의 상당 부분은 과거에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가정에서 할머니나 어머니나 누나나 이러한 뭘니까 가족 구성원이 다른 가족구성원, 남편이라거나 동생이라거나 아들딸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행했던 활동들이 사회 속으로 사회화 되어 가지고 나타날 때, 서비스 노동으로 나타나죠. 그니까 이거는 뭐 여성노동의 확장과정에서 자본의 이해관계하고 긴밀히 연결되면서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때에 따라 급속하게 확장되었다가 위축되었다가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 <싸이버타리아트>라는 책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여성이 수용해야 했던 가사노동의 사회화의 역사를 주로 서술을 하는... 여하튼 세탁,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다지원에서도 많이 사먹는 식당 이런 거... 전부 가사노동이 거리 속으로 재배치 된 것이잖아요? 집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인데도... 그래서 Affect적인 활동들 - 간호사도 말할 것도 없죠? 가족구성원들이 다른 가족구성원들에게 수행하는, 마을 사람이 같은 동네 주민들에게 베푸는 그 정동적 활동들이 직업화된게 간호원이죠.

그 다음에 의료 같은 행위도 그렇죠. 의사들이 지금은 직업으로 되어있지만 정통사회에서 의료라고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가장이라거나 집안에서 어머니나 이런 사람들이 의료행위를 많이 했고, 민간요법으로... 좀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들은 마을에서 일정한 정도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한 사람들이 의료를 담당했죠. 저도 어린 때에 한 50가구가 있는 마을에서 살았는데, 연을 날리다가... 연을 신나게 날리다보면 달리게 되잖아요. 달리는데 들판에 커다란 바위가 있었었는데 그걸 못보고 그냥 고꾸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여기 커다란 흉터가 있는데 도시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형편이 못됐기 때문에 동네에 그냥 자격증은 물론 없는 사람이 인제 의료행위를 하고 있어서, 그 사람한테 갔더니 된장을 발라줬어요. 그래서 좀 지나면 구더기가 들끓어 가지고 막 파내고 이러면서 구멍이 되게 크게 뚫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의료행위들이 마을에 잘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죠. 남모르는 의사한테 가가지고 주사 맞고 그런 거는 없었거든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래서 Affect 행위들이 인제 지금은 노동의, 직업 활동의 아주 전형적인 부분으로 되어있다.

▲노동에 의한 삶의 통합

그러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삶이 다 노동화되는 과정인데 남은 삶의 부분이 쪼그만해 지고 노동부분이 크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표현은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근대화에서는 삶은 삶이고 노동은 노동이다하는 것이었다면, 지금(탈근대화)은 다 노동이죠. 삶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라는 거. 노동에 의한 삶의 통합이라는데 좋겠죠. 노동이 삶으로 된다고 하는 그 말은. 그러기 때문에 삶과 노동이 분할돼있을 때에 노동자들의 투쟁은 삶을 회복하기 위한 노동의 거부행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투쟁은 파괴를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지금 이런 과정에서 노동을 파괴한다는 것은 삶을 파괴한다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예컨대 전교조에서 파업을 하면 그게 인제 가르침 행위에 대한 파괴로 동시에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의사를 파업을 하더라도 의료행위의 파업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파업행위 그 자체가 우리의 삶 관계의, 일부에 생산물의 파괴로 나타나는 걸 넘어서 삶 자체의 마디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딜레마가 되는 거죠. 딜레마가 되면서 전통적 의미의 파업 개념을 오늘날의 노

동자가 그대로 채택하기가 어려워지는 묘한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인제 그 나름대로 여우의 전략을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아까 우리가 ‘노동자의 투쟁이 건설적인 결로 바뀐다.’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더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의 파업행위가 어떤 새로운 것의 창안을 보여줄 때에만 더 큰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의 변화가 바로 이러한 변화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2교시: 비물질노동의 헤게모니

▲노동이 삶을 생산하는 과정

이 얘기는 바로 (1)개념이 (2)개념으로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실제로는. 노동이 전면화 되면서 노동 속에 삶이 들어와 있는 모습이란 노동이 삶 자체를 생산하는 과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노동은 삶과 분리되는 과정이었는데 노동이 삶을 생산하는 과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삶의 생산과 재생산이 우리가 맨 처음 시작할 때 맑스의 생각 속에서는 역사의 본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비물질노동의 헤게모니 - 이 말은 오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덧붙이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헤게모니라고 하는 것은 양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만을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비물질노동이 물질노동보다 퍼센티지가 더 높다-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비물질노동 산업노동의 시대를 보면, 공장의 수는 농촌의 수에 비해서 훨씬 더 적었거든요. 그런데 농촌에서 무엇이 생산될 것인가. 얼마만큼 생산될 것인가가 공장의 의존했죠. 공장에서 양모가 많이 필요하면 더 많은 땅이 목축업으로 바뀌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헤게모니라고 하는 것은 영향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주 적은 비율의 산업노동이 아주 큰 비율의 농업노동에 대해서 헤게모니를 행사했던 것과 똑같이, 비물질적 노동-Knowledge, Information, Communication, Affect, 이러한 유형의 것들이 다른 유형, 즉 산업노동이나 농업노동에 영향을 미쳐서 질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노동도 서비스화, 지성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업노동도 서비스화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공장생산이라고 하는 것도 다 컴퓨터 네트워크화되었다, 지성화되어가고 언어화되어가고 있죠. 이런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물질노동의 헤게모니 개념은 결코 양 중심으로 사고 된 게 아니라는 점을 일단 말해두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양적으로 적어야만 하는, 그건 또 아니죠. 양적으로 많아질 수도 있겠죠. 또, 때에 따라서 어떤 사회는 실제로 더 많고, 어떤 사회는 훨씬 비중적으로 보면 다른 산업노동이나 노동농업보다 더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게모니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그렇고요.

▲비물질노동의 헤게모니 하에서 이루어지는 이 삶의 생산과 재생산

다시 돌아와서 비물질노동의 헤게모니 하에서 이루어지는 이 삶의 생산과 재생산이라고 하는 이 특질로 인해서... 지금 뭐 ‘삶을 생산 한다’는 말 속에는 ‘관계를 생산 한다’, 그 다음에 ‘인간을 생산 한다’ - 이런 것까지 포함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노동에서는 이 두 개는 것은 고려 밖입니다, 실제로. 관계를 생산한다? 이거는 물질노동에서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을 생산한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물질노동의 경우에... 지금 예컨대 작년에 논란거리가 되었던 황우석 박사 사건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조건들의 의해서 쟁점이 사기사건으로 초점이 맞춰져 버렸지만... 사실상 줄기세포의 문제나 유전자의 공학적 operation의 문제, 이거는 인간이라는 것의 생산과 직결되는 문제이거든요.

좀 더 우리는 덧붙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의 개념을 더 적자면... form of life 혹은 life-form이라고 줄여 쓰기도 하는데... life-form 했을 때에는 온코마우스 같은걸 생각하면 됩니다. 특정한 생물 종인데 온코마우스라고 하는 것은 암에 걸려서 탄생하는 쥐잖아요. 암에 걸리지 않은 온코마우스는 없는거죠. 암이라고 하는게 이 생물종의 에센스를 구성

하고 있어요. 일종의 보편성이죠. 아마 온코마우스 같은걸 ‘생명형식’이라고 부르는게 낫겠고 우리가 흔히 쓰는 양식으로는 생명체라는 거죠? 이 생명체들이 산업의 산물이 됐거든요, 지금? 예컨대 온코마우스 같은 경우는 하버드 대학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러한 유형에 해당 되는건 미인나무라거나 앞으로 그 다양한 생물종들이 산업의 결과로 탄생하게끔, 생명체의 관장사항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게 됐다는 것이죠. 어제 제가 봤던 미스티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막 종말론을 선포하는 여성이 ‘인간이 즐기세포니 뭐니 뭐니 해가지고 신의 영역을 건드려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이런 괴물체들을 우리에게 보내가지고 징벌을 가하는 것이다. 달게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종교적 의식 속에서는 하나님의 관장 영역으로 되어있었던 생명체의 탄생, 생성, 창조의 문제 - 이게 사람의 문제로 되어진 것이 오늘 날 우리의 조건인거죠. 그러니까 아까 관계와 인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생명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form of life라고 하는건 생명체보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띠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삶형식’ 이거든요. 어떻게 살 것인가 문제, 어떤 삶이냐 하는 문제, 사회적 삶의 모드의 문제, form의 문제 - 이것을 노동이 생산해 낸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한 80년대 초 컬러tv가 나오면 회사에서 맞추고 나면 tv 앞에 주저앉아서 밥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 사라져가고 있죠? 물론 요즘도 50~60대 세대들은 비슷한 생활(form of life)을 유지할 거예요. 근데 10~20대들은 안 그렇고 컴퓨터 앞으로 쏘르륵 달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뭐 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form of life가 달라지고 다른 form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는 컴퓨터라고 하는 하나의 기계와 컴퓨터 네트워크라고 하는 연결망 - 이 자체가 바로 form of life라는 것을 변경시키는 것이죠. 이 변화는 사람들의 사랑의 방식들, 혼인의 방식들, 전부다 바뀌어버리잖아요? 예전과는 완전히 살아가는 풍토가 달라졌죠.

▲비물질적노동에서의 노동의 모습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동이 관계나 인간, 혹은 기타 생명체들 이걸 전부 생산하고 삶의 양식을 바뀌어나가는 것으로 되었을 때, 바로 이 보편은 삶 바깥에, 노동 바깥으로 유통시켜야 될 그게 없는 거잖아요. 노동 속에서 우리는 그냥 살고, 거기서 소비하고 그러는 거죠. 노동이라는게 거대한 공간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때 이제 노동이라는 말을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는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데, 우리한테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노동이라는 말은 불어에서는 travail 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옛날 그리스시대 때에는 노예들을 처벌할 때 노동을 시켰다고 하는데, 그 때 처벌하는 수단이 바로 노동(ponos)이었는데... 이런 유례를 생각하면은 좀 기분이 나쁜 언어죠. <노동을 거부하라>라고 이번에 번역된 나온 책이 있죠? 독일에 위기 그룹(Krisis Group)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이 만들어낸 책입니다. 여기 보편은 인제 노동이라는 말의 역사에 대해서 짚 분석하는데, 그러고 보면 노동이라는게 얼마나 불쾌한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여튼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원적으로는 안 좋은 말이지만 그건 그렇고...

일단 노동 바깥으로 내보낼 뭔가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 이 속에서 우리는 살고 죽고 우리가 객체로도 되면서 동시에 주체성으로도 되는 그 어떤 공간, 혹은 시간, 시간으로서의 공간 - 이게 바로 오늘날 비물질적노동 헤게모니 하에서의 노동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비물질노동 헤게모니에서의 노동 자체는 바로 우리를 생산하는 과정이기도 한 거죠. 우리

자신을 생산하는... 그래서 원래 네그리는 크리스스 그룹회와 마찬가지로 노동 거부론자였었는데, 노동 거부 개념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죠. 바로 아까 첫 번째, 삶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으로서의 노동에 대한 거부, 임노동에 대한 거부를 유지하긴 하지만 노동일반-우리가 지금 비물질노동이라고 하는 자체에 대한 거부로까지는 노동의 개념을 적용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전환시키면서 바로 노동 자체가 포획과 억압의 과정을 수반하면서도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을 생산해내는 이 주체성의 공장이기도 하다 - 그렇게 봄으로써 노동 내부에서의 적대를 분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고, 바로 이게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야기할 다중 개념이 바로 이 비물질노동화된 노동상황에서 탄생하고 있는 주체성의 이름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은데요.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과 답변- 훈육사회와 통제사회

질문

; 훈육사회하고 통제사회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답변

; 그러니까 훈육은 discipline이거든요. 그 다음에 통제라고 하는 건 control이에요.

discipline <-> control 요거는 이제 푸코가 18세기 이후 사회를 묘사할 때, 훈육사회의 등장을 이야기 했는데... 훈육모델은 우리가 비근하게 발견하는 것은 군대, 근대적 의미에서의 학교 - 이런 것을 통해 보면은 학교에서는 회초리, 매질을 가지고 다스리는 방식이죠. 좀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든다면은 카프카의 작품 중에서 제목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뭐죠? 옛날 화인을 찍는거 있죠? 인두를 가지고 폭 찌지는 것처럼 화인을 찍는 기계에다가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도장을 확 세기는 이야기를 그려 논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에다가 아예 질서의 명령, order라고 하는 거는 명령인데 질서의 요구를 몸에다가 아예 각인시키는 거죠. 인두로 지저놓는 것처럼.... 이게 이제 훈육적인 거죠. 회초리가 바로 그런 기능을 갖는 거죠. 제가 군대 맨 처음에 갔을 때, 맨 처음에는 아주 장교로 갔으니까, 막 근사하게 가더니 막 연변장에 차가 진입하고 나서 내리는 순간부터 지금부터 3초내에 밖에서 집결하라면서 완전히 구라빨을 가지고 엉덩이를 걷어차고 거기에서 연변장에 집결한 다음에 엎드려뺨쳐를 시키고 막 돌변하는 상황이 있죠. 그니까 이 돌변하는 상황에 기겁하게 만드는, 기를 확 꺾어놓는 그런 방법을 택하던데... 이런게 바로 훈육적 과정이죠. 근데 control이라고 하는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모콘(remote control), 리모콘을 보면은 만약에, 훈육적 방식에서 tv를 켜려면 손을 가지고 버튼을 꼭 눌러야 되겠죠. 물리적으로 각인시키는 방법을 써야될텐데, 리모콘은 그게 아니고 멀리서 레이저를 가지고 조작하잖아요. 이런 방식처럼 직접적으로 그 대상에게 각인시키지는 않으나 대상 자체가 나의 명령에 따르게하는 것이라라고 통제사회라고 하는것은...

그러면은 판옵티콘(panopticon)을 이야기할 때, 푸코는 판옵티콘이 훈육사회의 모델 케이스이고 일종의 창이라고 봅니다. 판옵티콘이 훈육사회를 보여주고 있다. 판옵티콘에서는 전망대, 감시대가 감옥 전체를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근데 오늘날은 죄수들을 그렇게 관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감옥 자체에 민영화가 이루어지

면서 소위 교정산업이 등장했죠. 감옥산업이 등장해서 민간 기업체가 죄수들을 관리하죠, 많은 경우에. 그래서 뭐 발목이나 손목이나 이런 데에 전자장치를 하고 그거를 인제 원격에서, 그 사람이 몇 미터 밖을 나가면 소리가 나게 한다거나, 신호가 오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에게 행동반경을 제안해주는 방식을 택하는... 이게 감옥 수형 행위의 훈육적 방식에서 통제적 방식으로의 전환이죠. 오늘날 학교에서도 그런 변화가 많이 나타나죠. 통제적 방식으로의 변화.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 경쟁이 과외 교육을 자기 내면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학생들은 탈출하려고 하고 교사는 붙들어 메가지고 회초리로 다스리려고 했지만, 지금은 학생들 자신의 욕망이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이 되겠다, 인류 대학에 가야 되겠다, 좋은 직장에 가야 되겠다’ 이게 자기욕망 속에 새겨지잖아요. 인입한다기 보다는 이 사람이 그 행위를 해서 원격으로 통제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자기욕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조적 효과에 의해서 그런 욕망에 따라 살도록 돼있는, 그런 식으로 학교가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런 지배적으로 된 사회를 통제사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탈근대사회를 통제사회라고 보고, 근대사회를 훈육사회로 보면 무리가 없죠.

▲질문과 답변- 노동관계로부터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내는 것
(탈주 개념 - 노마디즘 논쟁)

질문

; 삶과 노동에 관해서요. 삶이 노동 이전에 존재하는게 아니라 삶과 노동이 일치돼버려서 삶이 노동으로부터 탈출, 탈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걸까요?

답변

; 그렇죠. 이 외부로 이것을 부수고 나가는 그런 관계보다는 삶 자체의 재구성을 통해서 삶과 노동의 분리를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 더 유리해진 상황을 의미하죠. 철학적으로 말했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와서 소위 우리가 들뢰즈가 말하는 탈주 개념이 있잖아요. 요즘 그게 노마디즘 논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line of flight - 근데 flight라고 하는게 탈주라고 그랬고, 김재인 씨는 ‘탈주가 아니라 도주다’ 이런 식으로 애길 하고 있는데... 이 도주나 탈주나 어쨌든 어떤 것에서의 벗어남. 즉 외부성에 대한 추구라는 의미를 강하게 환기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들뢰즈의 철학체계 속에 이 개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포스트모던 상황에서의 삶과 노동의 관계를 다시 한번 염두해두면서 들뢰즈 개념을 한번 찾아보면 패스워드라는게 있죠. 한번 얘기했던 거 같은데... 명령어order-word와 패스워드password. 패스워드라는 것이 우리말에 다 암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암호로 해가지고는 이 말에 어떤 진정한 함축을 읽어내기 힘든 거 같아요. 이게 불어에서는 mot d'passe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mot d'passe하고 line of flight하고 비교해봐요. 같은 말이에요, 실제로는. 같은 것을 mot d'passe는 언어학에 쓰는 거고 line of flight는 생물학이나 정치학이나 다 통용 되는걸 쓰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mot d'passe는 통괄한다. 어떤 질서가 이렇게 있는데 예컨대 울타리라고 하죠. 울타리가 있는데, 이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것하고 울타리를 통과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어떤 울타리든 그걸같다가 통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 여기에서는 ‘도망친다’ 개념은 부차적이죠. 근데 flight라는 말은 fly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비상한다, 날아간다, 요 말도 있는거거든요. 당연히 사전에 보면은 탈주라는 말

도 들어있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조건을 넘어가는 행위, 그 넘어가는 선, 넘어가는 말, 통과하는 말, 그것을 건너서 날아가 버리는 선, 이런게 이 말들의 참된 의미로 읽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탈주라고 번역하면 기존 체계를 가만히 두는 겁니다. 두고 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걸 얘기하니까, 예컨대 소규모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가족적인 그런 유사관계를 만들어서 살아나가는 것에 대한 꿈, 이런걸 환기시킨다는 것이죠,

요 말이. 근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는 실제로 외부를 구성해내기 보다는 내부의 다른 변형태로 귀착된다고 하는 건 우리가 무수히 경험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게 아니라... 네그리는 이 말을 사용한다고 말을 안하고 자기 개념으로 그냥 써버렸는데, 이게 이제 exodus를 설명할 때에... 모세의 출애굽기를 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요. exodus라는 말은 마치 탈주라는 말과 비슷한 그걸 보여주죠. 근데 exodus에 대한 네그리의 설명 방식은 도망치는게 아니고 질서를, 어떤 주어진 질서를 깨고 나가는건데... 후위전쟁 - 그니까 옛날에는 vanguard들이 국가와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전위전쟁을 했었는데... exodus 과정에서는 이쪽에서 병사가 달려오고, 저쪽에선 출애굽을 하는데 뒤에서는 계속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후위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요. 후위전쟁 과정의 승리는 당연히 이쪽의 해체를 수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마디즘 문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탈주개념이 노마디즘의 코어로 이해되기 때문에, 노마디즘이 자꾸 도망쳐 댕기는 것처럼 보이죠. 유랑민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근데 노마디즘은 그게 아니고, 이 노마드nomad에 대한 들뢰즈 자신의 설명만 보더라도, 질서를 바꿔서 재구성하는, 재구축하는, 그래서 길을 트는 사람, 길을 트는 움직임, 이걸 노마드라고 부르는건데... 장소적 이동성은 본질적이지 않아요. 길을 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노마드의 핵심으로 제기되죠. 길을 연다, 플라이트flight한다, 패스pass한다 -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냥 도주성의 관념은 외부성을 환기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제한되게만 이해되는게 좋겠다. 그래서 기존의 것과의 전면에서의 대치도 아니고, 어쨌건 그것을 넘어서는 극복해나가는, 길을 터 나가는, 통과해나가는 - 그러한 실천들, 행위들 그거를 지칭해야되지 않나... 제가 이 얘기를 뭐하다가 끄낸거지? 아, 삶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삶이 노동에서 벗어나서 도망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주어진 노동관계로부터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내는거 있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강의 마무리

예, 30분이 좀 넘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수고 많았습니다. 아 잠깐만, 다음주에는... 우리가 맨 마지막에 종합하는 시간을, 맨 마지막에 짧게 갖고 상호토론과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돼있기 때문에, 일단 다중에 대한 이야기를 가급적이면 다음 시간에 다 마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1부의 3장. 그러니까 제국 안에서의 대안들하고 이거와 같은 곡을 연주하고 있는게 그 옆에 간주곡이 있죠? counter-Empire 거기에 대항 제국으로 번역이 돼있죠? 요 부분하고, 그리고 제4부의 1장은 우리가 이미 했습니다. 4부의 2장과 4부의 3장. 특히 4부의 3장을 같이 읽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 3개가 거의 같은 내용이라서. 예, 여기까지 하죠.